



229억 포기... 김하성 'FA 재수' 베틱

김하성(26)이 잔류 시 보장되는 1600만 달러(약 229억 원)를 포기하고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택했다.



MLB닷컴은 4일(한국 시간) "김하성이 2026시즌 연봉 1600만 달러 옵션 대신 옵트아웃(계약 파기 권한)을 행사했다"며 "원소속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독점 협상권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김하성은 2024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어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 달러(415억 원)에 계약했다.

당시 김하성은 다년 계약을 노렸으나 오른쪽 어깨 관절염과 과열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른 탓에 제 값을 받지 못했다.

대신 김하성은 2년짜리 단기 계약서에 2025시즌 종료 후 옵트아웃 조항을 넣었다.

사실상 FA 재수를 노린 것이다.

김하성은 2025시즌 중반 컨디션 회복해 그라운드로 복귀했으나 무리한 플레이로 잦은 부상에 시달

애틀랜타 잔류 포기... 새 팀 물색 1500만 달러 아닌 옵트아웃 선택 계약서에 직접 넣은 파기권 행사로 겨울 자유계약시장 대어급 기대 특급 유격수 없어 몸값 오를 듯

리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9월 탬파베이에서 방출된 뒤 유격수 자원이 필요했던 애틀랜타로 합류했다.

김하성은 이적 후 예전의 기량을 회복했다. 시즌 성적은 타율 0.234, 5홈런, 17타점, 6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649로 썩 좋지 않았지만,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정규시즌을 마무리한 김하성은 애틀랜타 잔류와 옵트아웃 행사를 두고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했다.

시장 상황을 검토한 뒤 연봉 1600만 달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겨울 FA 시장엔 특급 유격수가 나오지 않는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출신 FA 유격수 보비 셋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정규 시즌 막판 경기에 뛰지 못했고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전급 유격수 트레버 스토리는 옵션에 따라 보스턴 레드삭스에 잔류할 수 있다. 전망은 밝은 편이다.

MLB닷컴은 "김하성이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유격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연평균 2000만 달러(286억 원) 이상의 다년 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하성의 미국 대리인은 거물인 스포츠 보리스다.

한편 애틀랜타는 4일(이하 한국시간) 공식인 구단 사령탑에 윌트 와이스 벤치 코치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2013~2016년 콜로라도 로키스 감독을 맡았던 와이스는 2018년부터 애틀랜타 벤치 코치로 지냈다.

올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애틀랜타는 오랜 기간 팀을 이끌었던 브라이언 스넷 감독이 지난달 초 구단 자문으로 물러난 뒤 후임 감독을 물색한 끝에 와이스를 승진시켰다.

유격수 출신인 와이스 신임 감독은 1988년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에서 아메리칸리그(AL) 신인상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



역대 13번째

3관왕

유현조
부폰 꿈

2025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인 대보 하우스 디 챔피언십(총 상금 10억 원)이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파주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6556야드)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상금 순위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3명을 합쳐 60명의 선수가 출전해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2025 KLPGA 개인 타이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두 확정된다.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는 유현조(681포인트)가 1위를 확정했으나 상금왕, 신인상, 최저타수상, 다승왕은 안겟속이다.

유현조는 역대 13번째 3관왕을 노린다. 그는 올 시즌 상금 12억685만2481만 원을 기록하며 이 부문 3위를 달린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9600만 원이 걸려있어서 상금 1위 홍정민(13억2682만3334원), 2위 노승희(13억1447만9754원)를 제치고 상금 순위 1위에 오를 수 있다.

유현조는 평균타수(69.8913타)에서도 홍정민(70.1410타), 방신실(70.1463타)을 제치고 1위를 달린다.

유현조는 이번 대회를 10오버파 이하로 마치면 2021시즌 장타수에 이어 4년 만에 60타대 최저타수상을 차지할 수 있다.

아울러 유현조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022년 김수지가 세운 역대 한 시즌 최고 대상 포인트(760포인트) 기록도 갱신한다.

유현조는 "이번 대회는 중요한 타이틀이 많이 걸린 만큼 평소보다 조금 더 우승에 초점을 맞추고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대 경쟁자인 홍정민은 "시즌 최종전이지만 평소처럼 대회에 임할 것"이라며 "우승을 목표로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플레이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승왕도 이번 대회를 통해 결정된다. 홍정민과 방신실, 이에원은 나란히 올 시즌 3승을 거뒀다.

신인상은 서교림(1354포인트), 김시현(1308포인트)이 경쟁한다.

“김서현은 크게 될 투수... PS 짐 덜고 국대에 올인하길”

이젠 '국가대표의 시간'이다. 심신이 지친 한화 이글스 마무리 김서현(21)에게 환경의 변화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류지현(54)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김서현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부터 "지금 김서현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이번 소집훈련과 평가전이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감독은 "지금은 국가대표의 시간"이라며 "김서현은 앞길에 창창하고 국가대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선수"라고 김서현이 안정을 찾길 바랐다.

2023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김서현은 입단 첫 해 20경기 1세

류지현 야구대표팀 감독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해야" 포스트시즌 ERA 27.00으로 무너졌지만 여전한 차세대 마무리

이브, 평균자책점 7.25로 부진했다. 김서현은 2024년 37경기 등판해 1승 2패, 10홀드, 평균자책점 3.76을 올렸고, 세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에 한국 대표로 뽑혔다.

김서현은 처음 출전한 시니어 국제대회에서도 강력한 구위를 과시했다. 프리미어12에서 4경기에 등판해 4이닝 3피안타 무실점, 4탈삼진으로 호투했다. 류중일 당시 대표팀 감독은 "김서현은 대성할 투구다. 빠른 공을 갖췄는데, 변화구까지 장착하면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김서현은 KBO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올라섰다. 69경기에 등판한 김서현은 2승 4패, 33세이브, 2홀드, 평균자책점 3.14를 올렸다. 김서현은 박영현(35세이브·kt wiz)에 이어 세이브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고 성적을 올린 해에 김서현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8월2패, 5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8.44부터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김서현은 정규시즌 9-10월(1승 1패, 4세이브, 평균자책점 5.00)에도 흔들렸다. 10월1일 SSG 랜더스와의 방문 경기에

서는 5-2로 앞선 9회 말에 등판해 현원회와 이윤에게 투런 홈런을 얻어맞아 패전투수(%이닝 3피안타 2홈런 4실점)가 됐다. 한화의 정규시즌 1위 도전을 무산된 순간이었다. 포스트시즌(PS)에서도 김서현은 플레이오프 2경기 평균자책점 27.00(1이닝 4피안타 3실점), 한국시리즈 3경기 평균자책점 10.13(2%이닝 2피안타 3실점)으로 무너졌다. 한화는 김서현 덕에 1위 경쟁을 했지만, 김서현의 부진 탓에 우승 도전을 멈췄다.

한화 김서현이 10월30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차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8회 초 2사 1, 2루 LG 오스틴을 플라이 아웃으로 처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